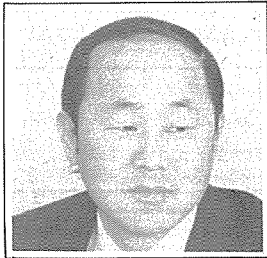


科學技術 풍토조성

“情報化시대에 對備해야”



崔 靖 民
(中央日報科學部長)

1987년은 그동안 꾸준히 추진되어온 科學化 運動이 급변하는 時代의 흐름에 뒷전으로 밀려난 해였다고 말할 수 있다.

연초부터 밀어닥친 民主化와 하반기부터의 選舉열풍은 科學技術 風土造成事業을 社會에 확산시키는데 큰 어려움을 주었다.

과학화 운동은 근본적으로 주관기관의 행사가 아니라 사회 각 기관, 개인에게 科學技術을 알리고 중요성을 일깨우는 對外활동이다. 따라서 사회가 차분하고 여유가 있을때 풍토조성사업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금년은 科學化 運動, 즉 풍토조성사업이 世人의 관심을 끌고 저변을 확대하기에는 바람이 너무 거센 열두달이었다.

또 著作權法 발효에 따른 科學저널리즘의 위축등은 극복해야할 「발등의 불」로 다가왔다.

科學도서 관련 발행인들은 연초부터 해의 출판사들의 잇단 경고에 몸을 움추리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과학도서 출판은 科學技術情報제공의 가장 초보적인 활동이다. 이 분야가 정체된다면 각가지 풍토조성 활동은 大衆化되지 못하고 저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발행인들은 科學技術處에 대책마련을 호소, 政府차원에서 科學도서 출판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여 줄 것을 바랐다. 科技處에서도 이의 심각성을 인식해 몇차례의 育成方案 모색을 위한 회의가 열렸으며 지원을 다짐했다.

한가지 바람직한 것은 9월 1일부터 각 일간지의 紙面이 週 8面씩 늘어나면서 대부분의 신문들이 과학란을 30% 정도씩 확대했다는 점이다.

일간지의 경우 고정 科學面의 확보는 科學의 大衆化를 위해 절대적이다. 일정한 지면이 배정됨으로써 흔히 간과하기 쉬운 국내의 과학기술을 미흡하나마 소개할 수 있는 것이다.

新聞지면은 점점 증대되는 추세이므로 앞으로 더 많은 科學面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와함께 科技處를 중심으로한 政府의 科學大衆化 시책이 가장 침체하였던 사실도 부인할 수 없다. 최근 몇년간 産業技術에 치중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科學化 運動은 힘을 잃어왔다. 그것이 누적된다면 전환기의 혼란까지 겹쳐 금년도 科學風土造成事業은 예년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서도 기존의 조성사업은 꾸준히 지속됐다.

國立科學館·韓國科學技術振興財團등을 중심으로 科學化 운동이 조용히 이루어졌다.

특히 科學의 날을 前後해 많은 科學행사가 치뤄졌다.

科技處의 우수科學어린이포상 사업은 전국 1 개국교당 1 명씩 모두 6천5백여명에게 科技處 장관상을 수여해 과학자로서의 꿈을 격려했다.

진흥재단은 어린이들의 科學에 대한 探究心を 높이기 위해 科學車를 운영, 전국을 순회하면서 세포관찰·유리관세공·전지만들기 등 13가지의 과학실험실습과 과학상자조립·모형비행기조립·과학영화상영등을 전개했다.

財團에서는 금년 이동과학차 1대를 추가로 확보하고 1988년 신학기부터 본격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이 과학차는 32인승 중형버스에 영사기·현미경·천체망원경·해부기·교육용 로봇 등을 갖추고 1대가 연간 50개 국교를 순회할 예정이다.

국립과학관과 어린이회관에서는 강연과 영화상영등의 프로그램으로 공개과학교실을 운영했다.

또 科技處와 문교부 공동주최로 모형비행기날리기·상상그림그리기·미래과학 글짓기·과학독후감발표등이 전국적으로 연중 실시됐다.

3월31일에는 科學記者클럽과 韓國科學著述人協會가 공동으로 주최한 「새로운 차원의 科學化 運動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돼 주목을 끌었다.

이 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情報化 및 脫産業化 시대에 맞는 科學運動을 전개하자고 촉구했다.

특히 李漢彬(慶熙大) 교수는 국토가 좁고 資源이 적은 우리나라는 두뇌와 기술로 살아가야 한다며 全國民의 技術解得力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예로 컴퓨터 이용과 教育을 강화해 컴퓨터가 생활화되는 풍토를 마련하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토론회는 1988년 이후의 과학화 운동의 방향과 방법을 제시한 의의있는 모임이었다.

政府의 科學풍토조성사업은 國立科學館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과학관은 적은 예산으로 「컴퓨터 교실」「학생과학교실」「과학동산」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계몽사업을 연중 계속했다.

방학중에 집중적으로 실시된 컴퓨터교실과 과학교실은 희망자를 모두 수용하지 못해 교육위원회에서 과학에 소질이 있는 학생을 추천받아 야만 했다.

주말에는 저명한 과학기술인을 초청하여 강연회를 개최, 청소년에게 과학의 꿈을 심어주었다.

33회를 맞은 전국과학전람회는 과학기술진흥의 주요사업으로 자리잡았다. 전국 초·중·고교사와 학생 모두가 참여기회를 갖는 과학전람회는 教育現場에서는 무엇보다 뜻이 있는 행사이다.

각 신문사의 新春文芸가 모든 작가지망자를 키워내는 창구이듯 전국과학전람회는 벽지와 섬에까지 과학적 탐구력을 키우고 입상자에게는 영광을 주는 사업이다.

최근 과학전람회가 사회에서의 관심을 잃어가는 듯한 경향이 있어 아쉬움이 크다. 과학전람회가 學校에서 갖는 열기만큼 인식이 높아지도록 육성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금년도 제 9 회를 맞는 「전국과학발명품 경진대회」는 국가기관·언론사·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풍토조성사업의 바람직한 본보기이다.

국립과학관과 東亜日報社가 공동주최하고 D 유업이 협찬하는 이 사업은 금년도 生活科學·學習用品·科學院具등 3개 부분에서 大統領賞등 총47점의 입상자를 냈다.

科學館 활동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줄 忠南大德 綜合科學館 건설은 올해 토목공사는 거의 마무리돼 1988년중 개관이 전망된다.

비록 종합과학관이 적당치 않은 위치에 자리잡았지만 이곳을 중심으로 각 市道 學生科學館·해외유수 과학관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全國

民 科學教育이 추진될 것을 기대해 본다.

연구기관에서도 풍토조성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한 활동이 있었다.

科學技術院 시스템공학센터는 주부들과 국교·중학생 자녀들이 같이 배우는 「컴퓨터가정교실」을 지난 7월부터 열었다. 컴퓨터의 역사에서부터 프로그램작성까지 어머니와 함께 배우는 가정교실은 자체에서 별도의 커리큘럼을 작성, 교육을 실시했다. 이같은 科學教育 運動은 앞으로 다른 기관에도 하나의 모델이 될 것이다.

데이터통신주식회사도 비슷한 사회교육 활동을 구상중이며 논문모집·情報化 社會의 用語퀴즈풀이등을 통해 컴퓨터와 통신의 미래상을 일반에게 전파하고 있다.

또한 發明特許協會는 연중 발명교실을 열어 發明 및 아이디어開發의욕을 고취하는 활동을 펴왔다. 이밖에 발명품 전시회·국교 및 중학생의 작문·만화를 공모하는등 창조적 발명을 장려하는 사업을 활기차게 추진했다.

大韓數學會는 1988년도 國際數學올림피아드에 참가하는 대표선발을 위해 全國우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1월29일 수학경시대회를 열었다.

이 수학올림피아드는 1959년에 처음 개최되었으나 우리나라는 한번도 참가하지 않다가 이번에 數學會가 중심이 되어 국내 대회를 개최한 것이다. 경시대회에는 3362명이 응시해 실력을 겨뤘다.

수학경시대회는 암기 중심의 교육에 찌든 학생들에게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워주는 모임이다. 아쉬운 것은 남들은 20여년전부터 이 대회에 참가, 국제적으로 두뇌를 겨뤄왔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겨우 참가하는 아쉬움이 있다. 결과에 구애받지 말고 매년 대회에 대표단을 보내 우리 실력을 쌓아야 할 것이다.

1987년 마무리를 장식한 「제 1 회 韓國科學賞」 발표는 소외감을 느꼈던 基礎科學者들의 의욕을 북돋아주었다.

그동안 응용과학에 묻히고 그 난해성 때문에 기초과학은 주목을 받지 못했다.

과학상이 있어 우리는 서울대 金鎭義 교수가

세계적인 物理學者이며 노벨상에 도전하는 碩學이라는 사실을 알게됐다. 이번 科學賞의 제정을 轉機로 삼아 기초과학이 도약하는 발판이 마련돼야 한다.

많은 기초과학자들은 韓國科學賞이 세계적인 권위를 갖춰 과학발전에 活力素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科學賞에 대한 政府 및 學界의 뜨거운 성원은 당장에 나타나는 성과는 없어도 우리의 學問수준을 높이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1987년에 얻은 科學風土造成事業의 결론은 새로운 차원의 科學化 運動이 필요하다는 共感帶가 형성됐다는 점이다.

지난 1979년 大統領의 지시에 의해 시작된 뒤로부터의 계몽활동 중심의 科學化가 아니라 時代의 요청에 따라 추진되는 社會活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이를 위해 科學言論媒体가 보다 육성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科學言論이 活性化되어야 科學界 각 분야 및 계층이 갖고 있는 情報傳達의 어려움이 극복되고 일부나마 大衆化까지 이른다.

최근 科學의 발달은 분야가 다르면 科學者끼리도 對話가 어려울만큼 용어 및 수식이 복잡해지고 있다.

따라서 보다 많은 科學者들이 참여하는 과학언론이 바람직하다. 이래야 과학에 대한 공포감·무관심을 극복하고 보다 많은 국민을 科學世界에 끌어들이는 것이다.

1987년 12월11일 韓國科學賞이 발표됐을 때 일반인들이 어느 정도 그 내용을 이해했을까를 보면 바로 과학언론의 절박성이 드러난다.

또다른 합의는 科學技術에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社會의 科學教育이다.

컴퓨터교육을 비롯한 科學훈련 기회가 다양하게 국민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교과과정에 과학의 비중을 높이는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새로운 科學化 運動이 198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도록 科技處를 비롯한 각 기관은 使命感을 갖고 참신한 아이디어의 개발과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길 고대한다.